

秋齋 趙秀三, 對山 姜潛, 冬郎 韓致元の 詩로 맺은 忘形之交

金 玲 竹*

<目次>

I. 들어가며	IV. 秋齋와 冬郎
II. 對山, 冬郎에 대하여	V. 세 사람의 會合
III. 秋齋와 對山	VI. 나오며

<국문 초록>

본고의 분석 대상인 秋齋 趙秀三, 對山 姜潛, 冬郎 韓致元은 19세기 경화별 열의 磁場 안에 있던 중간 계층 지식인들이다.

19세기 이후 서얼 계층과 여향 문인 등을 중심으로 ‘신분’이나 ‘계층’의 소속감을 넘어 교양을 공유하고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에 근거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신분과 職域을 넘어선 추재, 대산, 동량 세 사람의 만남과 우정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그 교유의 실재를 재현하는 것은 일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들의 만남 시점은 별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무렵이었다. 이 시기에는 계층을 넘어서 일상적인 것들을 공유하면서 순수한 ‘同好人’의 형태를 띤 詩緣이 종종 목격되는데 추재와 대산, 동량의 교유 역시 그 범주 안에 속한다.

때문에 사대부 계층 외의 중간 계층이 남긴 시문들을 천착해 고구하고 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wenxue@hanmail.net

운곽을 잡아주는 작업은 18, 19세기 문화지도의 점과 점을 이어주는 작업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주제어】 조수삼, 강진, 한치원, 19세기, 중간 계층, 교유

I. 들어가며

본고의 제목에서 摘示한 ‘忘形之交’라는 말은 對山 姜潛이 그의 詩에서 추재 조수삼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직접 언급한 것이다. 필자는 秋齋 趙秀三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의 만년을 의미 있게 해주었던 대산 강진, 그리고 동량 한치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다행히 대산 강진의 稿本, 동량 韓致元의 未定草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다분히 이 세 사람의 교유의 중심에 추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연구이지만, 추재가 남긴 詩稿들과 대산, 동량의 작품들을 통해서 교유의 정황을 실증할 수 있었다. 대산이 언급한 ‘忘形之交’, 추재의 詩稿를 직접 選하여 詩抄를 엮은 冬郎 韓致元. 그들이 나이와 신분을 넘어서서 왜 서로에게 끌렸었는가, 어떠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는가는 서로를 생각하며 남긴 시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세기 이후 서얼층과 여항 문인 등을 중심으로 ‘신분’이나 ‘계층’의 소속감을 넘어 교양을 공유하고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에 근거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신분과 職域을 넘어선 이들 세 사람의 만남과 우정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그 교유의 실재를 재현하는 것은 일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秋齋 趙秀三이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中人 문인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추재에 대한 인적사항은 여전히 ‘譯官’이라는 오해로 머물러 있다(거나¹⁾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간과하여 잘못 전해지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²⁾ 아울러 對山 姜潛, 冬郎 韓致元에 대한 인적사

항 혹은 그들의 작품세계를 고구할 만한 자료 분석이 아직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庶族 문인이나 中人層에 대한 자료 접근이 사대부 문학에 비해 한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들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적 그 행력이 알려져 있는 추재를 제외한 대산과 동량의 인적 사항과 행력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교유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對山, 冬郎에 대하여

姜潛(1807~1858)의 자는 進如(혹은 進汝), 호는 對山이며 初名은 姜海였다. 본래 對山이 그의 字였으며 號는 雪蕉였으나 후에 潛으로 개명하고 對山이라는 字를 그의 號로 삼았다.³⁾ 豹菴 姜世晁은 그의 증조부인데 대산은 그 문예적 기질을 그대로 이어 받은 뛰어난 시인이자 화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 최근 들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⁴⁾

豹菴의 증손이면서도 그는 庶族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현달한 관직에 처하지 못했다. 그저 검서관으로 시작하여 현감을 지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대 벌열 관료들은 소위 三檢書로 일컬어지던 이덕무, 박제가,

-
- 1) 그는 承文院 胥吏 출신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尹行愆의 『方是間輯』에 보인다. 윤행임은 그를 “槐院의 胥吏”라 하였다.
 - 2) 한국고전번역원 『추재집』 해제에는 연활자본 『추재집』에 誤入된 중국문인의 「日本雜詠」을 여전히 그의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日本雜詠」 작자의 문제와 『추재집』 편간 및 오류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추재 조수삼의 연행시와 「외이죽지사」」(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다.
 - 3) 대산 강진 후손 가장본 『對山初稿』. 참조.
 - 4) 이에 대해 즐고, 「대산 강진의 삶과 시」(『한문고전연구』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19세기 검서관 대산 강진의 시자료에 관하여-자료 검토와 교유관계를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 52집, 한국한문학회, 2013.) 참조.

유득공을 이을 만한 검서관으로 대산 강진을 뽑기도 했다. 그의 稿本들과 『內閣日曆』 등의 관찬자료를 참조해보면 대략의 行歷이 파악된다.

대산은 1831년 正使인 希谷 李止淵의 伴僞으로 연행에 임한다. 이후 1837년(31세)에 검서관으로 발탁된 후 1840년 3월까지 검서관직을 유지하다가 1840년 12월 興陽의 監牧官 생활을 한다. 2년여의 임기 후, 1842년부터 다시 검서관직에 복귀, 1847년에 安峽의 縣監이 되었다. 검서관 3년 이후 監牧官을 거쳐 縣監으로 퇴임하는 절차는 대부분의 검서관들이 밟는 수순이기도 하다. 任所를 옮겨 다니는 중간에 기행시를 남기기도 하였고, 石厓 趙萬永을 따라 금강산을 유람하기도 한다. 石厓 趙萬永, 雲石 趙寅永은 그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다. 검서관직에 발탁되었던 경위도 이들의 힘이 컸음이 분명했다. 이에, 대산은 운석 조만영의 輓詩에서 “현사, 악사 불러서 평진에서 접대했으니, 나 또한 공의 덕에 管庫人이었지.[招賢樂士接平津, 我亦公家管庫人]”⁵⁾라 한 바 있다. 平津은 平津閣으로 한나라 공손홍이 승상이 되어 현사들을 초청한 곳인데, 운석 조인영이 당대 賢士, 시인 묵객들에게 문화공간을 열어주었다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대산은 스스로 ‘管庫人[고지기]’이라 칭했는데, 庶族 신분임에도 자신을 초청했다는 뜻이지, 실제로 창고지기를 했다는 말은 아닌 듯하다.

나는 약관의 나이에 강대산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얼음처럼 깨끗했다.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 시 역시 그 사람과 같아서 드디어 마음을 기울여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대산의 이름은 潛이다. (中略) 나와는 동갑으로서 뜻이 잘 맞았는데, 대저 글 짓는 모임에서는 하루도 없던 적이 없다. 운석 조공[조인영]께서 한번 보시고는 매우 아꼈고 당세의 絶調라 극찬하며 조석으로 가까이 두셨다. 천거하여 드디어 비각에 들어 검서관이 되었다. 이에 대산의 이름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⁶⁾

5) 姜潛, 『對山集』, 「輓雲石趙文忠公」 第7首.

6) 金學性, 『對山集』, 「序」, “余弱冠遇姜對山, 儀宇氷清如也. 叩其中, 詩亦如其人. 遂傾心爲莫逆交. 對山名潛 … 與余齒同庚志相契, 凡翰墨之場, 未嘗一日

위의 글은 운석 조인영의 사위였던 金學性이 대산 강진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김학성은 자신과 동갑이었던 대산 강진의 재능과 인품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 조인영은 대산의 시를 감상한 후 그가 검서관직에 발탁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 당시 검서관직은 추천제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內閣의 유력인사들의 추천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풍양 조씨가문과 대산과의 본격적인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승문원 서리출신으로 석애, 운석 형제의 비호를 받아 훗날 大科를 치르고 五衛將의 벼슬을 하게 된 추재와, 그들의 厚意를 입고 신분을 넘어 詩友로 대우받은 대산은 동석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추재의 나이는 대산과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에 추재가 검서관 재직시절의 강진을 만났을 때는 이미 노인이었다.

때문에 추재, 대산, 동랑과의 만남은 대부분 그가 검서관 재직시절에 이루어졌다.

韓致元(1821~1881)의 字號는 冬郎이며, 초명은 韓致堯이다. 부친은 韓益相(1767~1846)으로, 병조참판을 역임한 인물이며 그의 아들 韓鎭昌(1858~1935)은 전라도와 경상도 관찰사를 거쳤다.⁷⁾ 『사마방목』 韓致肇(1808~?)의 항목을 보면 韓致堯가 한치조의 庶弟로 기재되어 있는 바, 韓益相의 서자임을 알 수 있다. 부친의 영향이었는지, 그는 武科에 급제

無也. 雲石趙公一見而深愛, 亟稱以當世絕調. 朝夕於左右, 爲之吹噓, 遂選入秘閣, 爲檢書官. 於是對山之名, 噪於一世. 所爲詩, 多膾炙人口.”

- 7) 동랑 한치원의 아들 韓鎭昌은 庶族임에도 불구하고 관찰사 벼슬을 지냈다. 1895년 度支部 참서관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905년 말부터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관찰사, 중추원참의, 육군참장, 군부협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07년 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각부 차관이 모두 일본인으로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1909년 8월까지 군부차관직을 유지하면서 임시 서리 육군법원장사무, 문관보통전형위원장 등을 겸임하기도 했다.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중추원 명단 335명 가운데 한진창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부호군에 이른다.⁸⁾ 아들 韓鎭昌이 쓴 「先君事略」에는 “선군의 성은 한씨요, 본관은 청주이며, 이름은 치원이다. 초명은 치요이며, 자는 동량으로 自號를 이것으로 삼았다. 당대 시인 韓偓을 흠모하여 그 초명과 자를 썼으나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先君姓韓氏, 系出西原, 諱致元, 初諱致堯, 字冬郎, 因又自號, 慕唐詩人韓偓而冒其初名與小字, 既而改今名也.]”라 하였다. 즉, 한치원은 당대 시인 韓偓의 시풍을 흠모하여 한약의 호인 ‘치요’를 초명으로 삼고, 한약의 초명인 ‘동량’⁹⁾은 한치원의 자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진창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한치원이 한약을 흠모한 것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初名을 스스로 韓偓와 연관 지어 지었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부친인 韓益相이 아들의 이름을 한약과 연관시켜 지었고, 훗날 한치원은 이에 걸맞게 자신의 자호를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진창은 부친의 散藁를 수습하여 『冬郎集』 3권으로 엮었으며 이의 刪定을 寧齋 李建昌과 滄江 金澤榮에게 부탁했다. 이때가 1899년(광무 3)이니, 그의 사후 근 20년 만에 詩文을 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치원의 『동량집』은 3권1책의 奎史字本이다. 1, 2권은 詩가 수록되어 있고 3권은 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文은 대부분 代人作이다. 필자가 참조한 것은 활자본 『동량집』과 필사본 『蘇谿集』 乾·坤이다. 『蘇谿集』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동량집』의 저본이었을 가능성이 큰 未定草이다.¹⁰⁾ 落帙이기는 하지만 누락된 詩와 詩序, 인명자호 등을 대조할 수 있으므로 가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수당 이남규는 『동량집』에 서문을 쓴 바 있는데¹¹⁾ 다음과 같은 내용

8) 이상은 『崇禎紀元後四丁酉式司馬榜目』(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과 『冬郎集』 卷1, 「先君事略」을 참조.

9) 韓偓(842~923)은 晚唐 五代 詩人이다. 어릴 적 이름은 冬郎이었으며, 字는 致光, 號는 致堯였다. 만년의 호는 玉山樵人이었다.

10) 『蘇谿集』에는 동량의 自序만 실려 있을 뿐, 아들 韓鎭昌의 「先君事略」이 없으므로 활자본 『동량집』 이전의 필사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11) 이 서문은 『동량집』, 『소계집』 모두 실려 있지 않다.

이 있다.

(前略) 우리 당의耆舊들 중에 冬郎子란 분이 있는데, 그는 재주는 풍부하지만 사용함에는 인색하고, 몸은 움츠려 있지만 마음은 恬淡하다. 그리고 그 몸가짐은 簡約하여 격렬함이 없고 명랑하지만 현란하지 않아서 마치 텅 빈 것처럼 겸허하지만, 그 내부에 지닌 것을 끝내 가리워서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시문을 지음에 그 기운이 맑아서 이를 손으로 움킬 수가 있고, 그 법도는 밝게 빛나서 이를 지적하여 가리킬 수가 있으며, 그 성품은 泠泠히 울려서 이를 귀로 들을 수가 있으니, 비록 당초에 面識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한번 보기만 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공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겠는가.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일 뿐이다. 지금 그의 자제인 鎭昌씨가 공이 지은 시문 약간 편을 수집하여 장차 이를 출판에 부치려 하면서, 그 책머리에 엮을 말을 나에게 부탁하여 왔다. 나는 진즉에 공을 뵈어서 그분의 가진 것을 알고 있는 터이니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면 그가 시문을 잘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를 이와 같이 써서, 이를 다시 돌려드리겠다. 공은 唐나라의 韓偓이 시로 유명한 것을 흠모하였고 또한 성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의 小字를 취해서 자신의 別字로 삼았다고 한다.¹²⁾

수당과 친분이 있었던 韓鎭昌은 부친의 시문집에 서문을 받고자 했다. ‘吾黨’의 ‘耆舊’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동당의 생전에 교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의 아들 한진창은 일전에 수당에게 「東史綱目」의 서문을 부탁한 전례도 있어 동당 부자와 수당과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다.¹³⁾ 수당은 오히려 동당의 詩文에 능한 재주를 아까워했다. 위의 예시에 생략되어 있지만 서문의 초반부에 “내가 매양 남의 좋은 詩文을

12) 李南珪, 『修堂遺集』 冊6, 「冬郎集序」, “... 吾黨耆舊, 有冬郎子, 才瞻而用蓄, 身絀而志恬, 其行已也, 簡而不激, 朗而不耀, 嗶嗶若虛, 而存諸中者, 卒不可得, 以揜也. 爲詩文, 其氣澄然若可挹, 其法粲然若可指, 其聲泠泠然若可聽, 雖素未相識者, 一見尙可以獲其彷彿. 然此豈公所樂爲者哉. 其亦可惜也已, 今其肖胤鎭昌甫, 哀公所爲詩文若干篇, 將錄諸梓, 屬余以弁卷之語. 余嘗及見公而識其所有, 無已則書所以惜其爲好詩文者而還之. 公慕唐韓偓以詩顯, 而姓與之同, 故取小字, 爲別字云.”

13) 李南珪, 『修堂集』 卷5, 「東史綱目」 서문 참조.

언어서 읽을 때면 언제나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재주를 아까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 하였고, 동량의 큰 재주가 천하에 두루 쓰이지 못하고 시문으로만 발산됨을 아쉬워했다. 수당이 바라보는 동량은 그러했지만, 동량 자신은 그저 ‘詩人’으로 살기를 원한 인물이다.

그는 인생의 반을 온전한 詩人으로, 그리고 반을 武人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시인의 꿈과 武人의 현실 속에서 갈등했던 흔적이 보인다. 다음 시는 그가 무과에 합격한 후 소회를 읊은 것이다.

應榜日有感 시험에 합격하고 느낀 바 있어

第一首

沒技成名劇可憐	沒技로 명성 이뤄 몹시도 가련하나
儒衣欲脫轉依然	선비 옷 벗으려니 더욱 더 아쉽구나
黃花不解人投筆	국화꽃은 붓을 던진 관리 마음 몰라
開遍東籬似去年	작년처럼 동쪽 울에 고루고루 피었다

第二首

髻疎面鐵便奇材	성긴 수염, 두꺼운 얼굴도 기특한 재주
拋却殘書亦快哉	낡은 책을 던져 놓고 어찌 유쾌하겠는가
慈母不知文武別	인자한 어머니는 문무 구별 모르셔서
一般只喜戴花廻	꽃 꺾고 돌아온 것만 똑같이 기뻐하네

第五首

詩名依舊喚冬郎	시명은 예전과 같아 동량으로 불리는데
愛兒諸公謂我狂	나를 아낀 제공들은 미쳤다고 여기겠지
自是命宮逢武七	이제부터 운명이 현무칠수 ¹⁴⁾ 만났으니
中軍邊地也何妨	중군 되어 변방에 간들 무슨 상관 있으리

武科에 합격했지만 기쁜 심정을 읊기보다는 이제 문인의 삶과 멀어지

14) 武七: 玄武七宿를 의미한다. 별자리에 斗·牛·女·虛·危·室·壁의 7宿는 北方에 있고 그 모양이 거북이나 뱀과 같다 하여 玄武七宿라 한다.

는데 대한 아쉬움의 토로로 느껴진다. 그는 첫 수의 첫 구절에서 ‘沒技’로 합격했다고 언급했다. ‘물기’란 柳葉箭, 片箭, 騎蕩 등, 정해 놓은 화살의 수를 모두 맞히는 것을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과의 모든 試取에서 만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스스로 이것을 ‘가련하다’라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後漢의 명장이었던 班超와 견주어 말했다. 『後漢書』, 『班超列傳』에 의하면 반초는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하여 항상 글씨를 써 주는 품팔이 생활을 하다가 한번은 붓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장부가 별다른 지략이 없다면, 부개자나 장건이라도 본받아서 이역에 나아가 공을 세워 봉후가 되어야지, 어찌 오래도록 필연 사이에만 종사할 수 있겠느냐.[大丈夫無它志略, 猶當效傅介子張騫, 立功異域, 以取封侯, 安能久事筆研間乎.]”. 이후, 그는 西域에 나아가 공을 세워서 定遠侯에 봉해졌다. 동량은 시인의 삶을 살다가 무과에 급제하게 된 자신의 모습이 반초와 오버랩 됨을 느낀다. 어찌면 자신도 반초처럼 무공을 세워 이름을 날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내 기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속도 모르고 환하게 피어있는 국화가 다소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어사화를 꽃고 금의환향한 것에 기뻐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아끼던 詩人墨客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자신은 무인의 길을 걷겠지만 자식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¹⁵⁾ 즉, 시인으로서 남고 싶은 바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동량은 무관의 길로 접어들고 任所로 향하면서 추재와 대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기에, 추재 시작품을 감상하거나 대산의 자제들과 재회했을 때, 그 아쉬움은 배가 되었을 것이다.

韓愈와 孟郊의 사귄처럼 지위와 외모 등의 처지를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사귀는 것을 ‘忘形之交’라 한다. 秋齋, 對山, 冬郎은 명실상부 각자

15) 이 시의 제3수에 “秋燈黃葉讀兵初, 墨海文虹計已疎, 家有一男聰慧否, 他時莫學乃爺書.”라 하였다.

의 다른 처지에서 서로를 慰撫할 수 있었던 좋은 친구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의 사귄 곳은 그들 개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였던 문화 공간(예를 들어 燕巢亭), 그곳에 雅集했던 다양한 詩人 群像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Ⅲ. 秋齋와 對山

앞서 언급했듯, 추재의 만년과 대산의 검서관 재직시절이 겹친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긴 세월을 함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 특히 추재가 강진을 아끼는 마음은 시 곳곳에서 드러난다.

夢對山 꿈에서 대산을 보다

日與君相見	매일매일 그대와 서로 만나니
開窓卽對山	창 열어 바라보면 자네였었지
吾衰無遠夢	이 몸은 쇠약해서 먼 꿈 없지만
人邇有孱顏	그대 요즘 산처럼 우뚝하였네.
才藝圖書府	도서부 속에서 기예 펼치고
遨遊宰相間	재상들 사이에서 맘껏 놀았지.
孤舟乘夜雪	눈 내린 밤 틈타 배 저어 왔다
倘不及門還	혹시나 문 앞에서 되돌아갔소?

추재는 “꿈에서도 대산을 그럴”만큼 그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 시의 1, 2구는 특히 重意的인 표현이 탁월하다. 즉, 날마다 대산을 만났다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매일 보고 싶어 창을 열고 ‘산을 마주 대한다[對山]’라 重意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3, 4구는 이미 늙어 원대한 포부가 없는 자신과 이제 막 검서관에 발탁되어 靑雲의 꿈을 지니고 있을 대산을 비교하여 말했다. 이어지는 구절들의 내용도 그가 규장각에서 검서관직을 영예롭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짝

나라 王徽之가 山陰 땅에 살던 중, 큰 눈이 내린 날 밤 흥취가 일어나 친구인 戴安道를 찾아갔다, 그의 문 앞에서 흥이 사라지자 만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고사를 취했다. 즉, 대산이 그리워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는 대산이 자신을 보고 싶어 찾아온 것으로 표현했다. 추재가 대산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가 여실히 느껴진다.

和對山閣中酬唱韻及西城幽居韻

대산이 규장각에서 수창한 운과 西城¹⁶⁾의 幽居에서 쓴 운에 화운하다

竹深荷淨起樓年	대 깊고 연꽃 맑은 곳에 누대 세운 해
三檢書名動木天	三檢書의 명성은 규장각을 울렸었지
今日曳裾同宿昔	오늘은 옷자락 끌고 함께 밤을 보내니
退朝揮筆落雲烟	퇴조 후엔 붓 휘둘러 구름연기 글씨 쓰지
星河耿耿宮秋入	은하수 밝고 밝아 궁궐의 가을에 들고
虹月迢迢閣夜懸	달은 높이 떠서 내각의 밤에 걸렸구나
夕史畫經將獻議	주야로 사서, 경서 의견을 아뢰려고
小臣欣抃自無眠	小臣은 기쁜 맘에 절로 잠이 없어진다

이 역시 대산이 검서관 재직시절에 쓴 시이다. 추재는 대산이 入直할 때 자주 그와 시문 수창을 하곤 했다. 위의 시를 보면 豹菴의 才藝를 이어받아 대산 역시 글씨에 능했음을 알 수 있는데, “退朝揮筆落雲烟”이라는 구절은 두보가 「飲中八僊歌」에서 草聖 張旭을 묘사하며 쓴 “揮毫落紙如雲煙”을 연상케 한다.¹⁷⁾ 추재는 대산을 가까이 지켜보며 木天, 즉 규장각을 울리던 三檢書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이 작품은 대산에 대한 추재의 애정 어린 시선을 제외하고서라도, 당시 검서관들의 入直 모

16) 西城은 한양 西城門 내를 가리키며 주로 湯春臺 일대를 일컫는다.
 17) 두보는 「飲中八僊歌」에서 張旭을 묘사하며 “왕공들 앞에 모자를 벗어 머리를 드러내고, 붓을 휘둘러 종이에 떨어짐이 구름이나 연기 같다[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煙].” 하였다.

습을 생생히 재현해냈다.

挽趙芝園 趙芝園을 추모하다

其五

阮歌 ¹⁸⁾ 歐筆妙專門	阮歌와 歐筆을 독차지 하였으니
雜藝傍通總不煩	온갖 재주에 애쓰지 않고도 골고루 통달했네
肘後靈丹曾度世	의서와 영약으로 세상사람 살려 봤고
倦來餘技付兒孫	늘그막에 손자들에게 다 물려주었다 ¹⁹⁾

1849년 추재 조수삼이 세상을 떠난다. 대산은 추재를 위해 輓詩 10수를 지어 애도했다. 추재 조수삼이 지닌 10가지의 長技는 인구에 회자되었다. 그 하나는 흰칠한 생김새이고, 둘째는 詩와 文, 셋째는 功令文이며, 넷째는 醫學, 다섯째는 장기와 바둑이요, 여섯째는 글씨, 일곱째는 박식함이며 여덟째는 談論이고, 아홉째는 복이 많은 것이며, 열째는 장수한 것이다.²⁰⁾ 이에, 대산은 그가 가진 長技를 최대한 시에 담아내 기리려 했던 모양이다.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추재의 손자인 趙重默(자는 德苻, 호는 雲溪, 蔗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짐작된다. 趙重默은 조선 후기 유명한 畫員이었으며, 헌종과 철종의 御眞을 그린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대산은 제3수에서 “을어보면 삼한인은 이해하지 못하니 / 지음은 필경 중국에 있으리라[吟遍三韓人不識, 知音畢竟在中州]”라 한 바 있다. 실제로 추재는 「鐵板橋」라는 시로서, 청조 문사들 사이에 회자되

18) 연화자본 『추재집』에 실린 「秋齋先生傳」에는 이 시가 “河歌歐筆妙專門, 雜藝傍通總不煩, 肘後靈丹曾度世, 倦來餘技付兒孫.”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 서는 姜潛의 『對山詩鈔』(미정초)와 『對山集』(전사자본)에 수록된 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9) 姜潛, 『對山詩鈔』 총 10首이다.

20) 趙秀三, 『秋齋詩稿』, 「秋齋先生傳」, “世以爲秋齋所蘊者凡十, 而人得其一, 可足生平, 一風度, 二詩文, 三功令, 四醫學, 五博棋, 六字墨, 七強記, 八談論, 九福澤, 十壽考也.”

기도 했는데, 이는 강준흠의 『삼명시화』에 잘 묘사되어 있다.²¹⁾ 대산과 추재가 만난 시점은 이미 추재가 6번의 燕行을 다녀온 이후였으므로 중국에서의 詩名은 익히 들어 알았을 것이다.

추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대산은 安峽의 懸感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추재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만시 제10수에서 “뉘라서 붉은 명정 보내고 도답게 흙 돋우나[誰送丹旌厚地理]”라 하며 추재를 직접 보내지 못한 미안함을 토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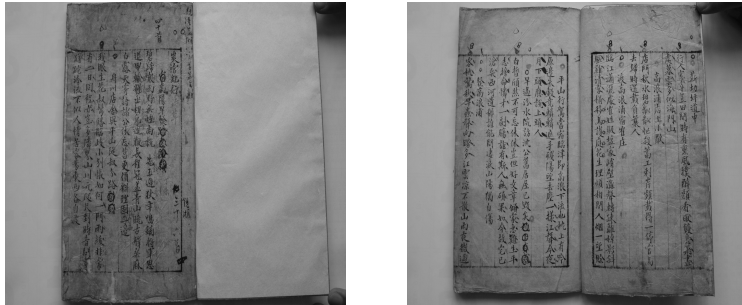
懷趙芝園 조지원을 추모하며

平生酷愛對山言	평생 동안 나의 말을 너무 아껴서
峽卷斑斕圈墨痕	峽卷에 찬란하게 圈批 흔적 남기셨지
忽忽吾猶人世否	갑자기 그대가 이승에 있는 듯 했는데
今行不見趙芝園	지금은 조지원이 보이지 않는구나

추재가 세상을 떠난 후, 대산은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몇 편의 시를 남겼다. 대산 강진은 1847년~1853년²²⁾ 안협 懸感을 지냈는데, ‘峽卷’은 이때 지은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추재가 1849에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도 안협으로 부임한 초기 추재에게 詩卷을 보내 圈點, 批點을 부탁하지 않았나 한다. 그의 稿本 『峽館紀行詩鈔』²³⁾가 바로 안협 시절에 쓴 시이며, 1847년의 작품들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추재가 보았던 시권은 『峽館紀行詩鈔』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협관기행시초』에는 圈批의 목흔이 가득하다. 추재가 교정한 시들의 흔적을 보면, 이승에서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가도 이내 다시 보면 곁에 없음을 쓸쓸해하

21) 강준흠, 『삼명시화』에 인용된 이 시는 『추재집』과 『추재시고』에 「鐵板橋」로 되어 있으나 『경원총집』에 의하면 본래 5수의 연작시였던 『海甸竹枝詞』의 첫 번째 시임을 알 수 있다. 「철판교」는 “마르코 폴로 다리[Marco Polo Bridge]”라 불리던 ‘蘆溝橋’를 묘사한 시이다.
 22) 줄고, 「대산 강진의 삶과 시」, 『한문고전연구』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23) 대산 강진 후손 가장본 『峽館紀行詩抄』.

는 자신의 소회를 담아낸 시이다.



[사진 1] 對山 姜潛 『峽館紀行詩鈔』

다음은 추재의 기일이 가까워졌다는 말을 듣고 쓴 시이다.

聞趙秋齋祥期在近 淒然有懷

조추재의 기일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슬퍼서 짓다

此生恨未早追遊	이번 생에 한이라면 더 빨리 중유하지 못한 것
纔識秋齋已白頭	겨우 알게 되었을 땐 추재 이미 백발이라
許我忘形膺有故	망형의 사귀를 내게 허락함에 응당 이유 있을 터
憐才入骨更無儔	재주 아낀 마음이 사무치지만 다시 짝할 이 없었네
江山千古終還氣	강산은 오랜 세월 지나며 끝내 기운 되찾고
花鳥今春始免愁	꽃과 새들 올 봄에 비로소 근심을 면했구나
聞說阿孫曾畫像	듣자하니 손자가 추재의 화상을 그렸다는데
風流能得七分否	그 풍류 七分이나 담아낼 수 있었을까

추재와 대산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무 ‘늦게’ 만났다는 점이다. 백발이 성성한 老人이 젊은 대산에게 忘形의 사귀를 허락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추재는 대산의 사람됨과 재주를 아꼈고, 대산은 추재의 그 마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산은 추재의 신분이 中人이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따랐음이 분명하다.

훗날, 대산은 松泉 林秀의 별장에서 趙大年(추재의 아들), 鄭板橋(鄭宇性), 張玉山(張之琬)과 만나 함께 시를 짓는다. 이 시는 稿本 『靑破錄』에 「四月二日松泉庄上, 遇趙大年(秋齋子), 鄭板橋, 張玉山 共賦」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간본 『대산시초』에는 「初夏松泉樓上 遇張玉山之琬 鄭板橋宇性」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즉 간본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추재 아들인 조대년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추재의 아들로써 확인된 인물은 趙壽楠·趙壽枋·趙壽檢·趙壽枳이다. 특히, 조수남의 행적은 동량 한치원이 직접 엮은 『추재시초』, 「李家洪」이라는 시의 後識에만 기록되어 있다.²⁴⁾ 때문에 이들 가운데 누가 ‘大年’이라는 字 혹은 號를 썼는지는 명확치 않다.²⁵⁾

강산과, 꽃, 새들도 모두 힘을 잃은 듯 했으나 이제 겨우 기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대산에게도 적용된다. 그가 추재를 잃은 후 힘겨워한 시간들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다. 또한 숨씨 좋은 손자가 추재의 초상화를 그린다하더라도 내재된 풍류까지 다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애써 해 한다.

24) 詩의 後識에 “... 今年夏, 余病幾死復起, 楠子菟得於舊廬中, 令性孫證書, 歎綺習之...”라는 구절이 있는데, 楠子는 조수삼의 큰 아들인 趙壽楠을 지칭하는 듯하다. 조수삼의 가계에 대해서는 박철상 선생이 밝혀 놓은 바 있다. 조수삼의 아들은 모두 네 명으로, 趙壽楠·趙壽枋·趙壽檢·趙壽枳 등인데, 기존 『秋齋集』과 『秋齋詩稿』에는 조수방, 조수검, 조수지의 행적이 드러나지만, 조수남은 확인할 수 없었다. 박철상 선생이 개인소장본 『수시첩』을 통해 조수남의 존재를 추론했다면, 한치원의 『동벽(추재시초)』은 그의 장자인 조수남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5) 다만, 이러한 추정은 해 볼 수 있다. 대산의 刊本에는 누락되어 있고 未定草 稿本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손이 조대년의 이름을 지웠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재의 아들 가운데, 수검이 1817년~1821년(추정) 사이 江州에 4년간 유배를 갔는데 후손이 이 사실을 알고, 교유 인물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닐까한다. 이 부분은 시일을 두고 다른 자료들과 대조하여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IV. 秋齋와 冬郎

秋齋 趙秀三과 冬郎 韓致堯. 이들의 나이 차이는 할아버지와 손자뻘이다. 추재의 생년은 1762년이며, 동랑 한치원의 생년은 1821년이다. 이 60년의 간극을 메워준 것은 두 사람의 ‘詩緣’이다. 필자가, 추재와 동랑의 친밀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다음의 시에서 비롯된다.

燕巢亭子紫烟村	자춘빛 안개 싸인 마을에 연소정 있으니
姓是香奩人玉溫	성은 한악과 같고 사람됨 옥처럼 매끄럽구나
不學蔣仙與袁佛	莊麟昌의 선가와 袁枚의 불가를 안 배웠어도
黃金欲鑄趙芝園	황금으로 조지원을 만들려 하는구나 ²⁶⁾

이는 圭齋 南秉哲의 회인시 가운데 ‘冬郎 韓致堯’를 묘사한 시이다. 일종의 회인시이다. 懷人詩라면 대상이 되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가장 특징적인 면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흥미로운 점은 규재가 동랑과 추재를 함께 연상했다는 것이다. 즉, 동랑의 가장 특징적인 면 중 하나가 바로 추재 조수삼과의 친밀한 交遊였던 셈이다. 시의 첫 구절에 언급했듯, 燕巢亭은 대산과 동랑, 추재가 함께 자주 들렀던 詩會 장소이다. 이어서 규재는 그가 장인창의 선가[蔣仙]와 원매의 불가[袁佛]를 배우지 않았으나 황금으로 조지원을 빚으려 한다고 말했다. 일찍이 추재는 그의 시 「吳蘭雪知州」에서 “요즘의 대가 중에 蔣袁을 추앙하니, 두세 명의 선진들은 모두가 고수라네[近時大家推蔣袁, 二三先進皆高手]”라 한 바 있다. 세 번째 구절의 蔣仙과 袁佛은 각각 장인창과 원매를 지칭한다. 申緯의 『警修堂全藁』에도 「蔣靜存翰林」²⁷⁾이 실려 있는데, 이 시에 의하면 원매와 함

26) 南秉哲, 『圭齋遺藁』, 「懷人詩」.

27) 申緯, 『警修堂全藁』 冊13, 「脚氣集」, “鬼膽仙才僧性情 纔留半偈償多生 羊燈無燄三更碧 螢火亂飛沙自驚(註: 蔣麟昌字靜存 袁子才同館翰林也 詩好李昌谷

께 동문수학한 장인창에 대해 상세한 주가 부기되어 있다. 황금으로 조지원을 빚겠다는 말, 이는 곧 그의 동상이라도 세우고 싶다는 뜻인데 어떤 이에 대한 흠모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는 표현이다. 그만큼 추재에 대한 신뢰와 존모의 마음이 깊었던 사례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謝韓冬郎致堯扶老杖 동랑 한치요의 부로장에 감사하며

韓生贈余扶老杖	한생이 나에게 부로장을 주었으니
龍頭鬼面森奇像	용머리에 귀신 얼굴 기이한 모습 펼쳐졌네
摩挲却憶少年時	어루만지며 젊은 시절 추억해 보는데
屐齒觸石雲雷響	나막신 소리 돌에 닿아 크게 울린다
欣然下堂一徘徊	기쁘게 당에서 내려와 한번 배회하니
月明如水階庭廣	물처럼 달은 밝고 섬돌 앞의 뜰은 넓다
七月八月秋漸涼	칠월, 팔월 가을은 점점 서늘해지고
千山萬山心先往	천산, 만산, 마음은 먼저 내달린다네
或名靈壽或丹藜	혹은 영수, 혹은 단려라 부르기도 해
余亦春臺臺上上	나 또한 春臺의 위로 올라가본다
二酉瑯嬛在眼中	二酉와 瑯嬛福地가 눈앞에 있고
靑雲送客生遐想	맑은 구름 나그네 배웅해
夜半光輝燭藏書	한 밤중 불빛으로 장서를 비추니
朱文玉匣群仙掌	주문과 옥갑은 仙人들이 관장하네
歸來還我老病身	다시금 나의 병든 몸으로 돌아오니
歲暮此君惟可仗	만년에 이것만이 의지할 만하구나

(詩註: 부로장은 일명 영수목, 일명 귀면등, 일명 청려, 일명 단려라고 한다.

[扶老藤, 一名靈壽木, 一名鬼面藤, 一名靑藜, 一名丹藜])

추재의 주변은 늘 수많은 지인들과 자손들로 붐볐지만, 그럼에도 노

有驚沙不定亂螢飛 羊燈無燄三更碧之句 生時 其祖夢異僧擔十三經擲其門 俄而長孫生 故小字僧壽 及長 名昌壽 以避國諱 又自夢 僧畫猗猗一幅與之 遂名猗昌 十七歲舉孝廉 十九歲入詞林 二十五歲卒 性傲兀不羈 過日成誦 常曰文章之事 吾畏袁子才而愛袁叔度 他名宿如沈歸愚易與耳 卒後三日 其遺孤三歲披帳號叫曰 阿爺僧衣冠坐帳中 家人爭來 遂不見 靜存始終以僧爲鴻爪之露 然與人談 輒痛詆佛法 深惡和尚”

년의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나보다. 늙마에 즐거움이 줄어들 무렵 추재는 손자뻘인 동량과 잔정을 주고받는다. 위의 작품은 동량 한치원이 추재에게 지팡이를 선물하자, 이에 고마움을 느끼며 쓴 시이다. 용머리와 귀신의 얼굴이 새겨져있는 기이한 지팡이는 곧 추재에게 ‘仙界’에 오르는 듯한 환상을 제공한다. 추재의 나이 정도 되면, 지팡이는 멋이 아니라 보행에 필요한 필수품이었을 것이다. 추재 노인을 챙기는 동량의 마음도 살갑지만, 그 지팡이를 받고 仙界를 종횡 무진하는 꿈을 꾸는 그도 재미있다. 지팡이를 짚고 집 앞을 배회하더니 어느덧 마음은 수천 권의 책이 있었다는 二酉, 天帝의奇遇를 모아놓았다던 瑯嬛福池에 다다른다. 여기엔 귀한 藏書들을 선인들이 관장하고 있었다. 아마도 추재가 꿈꾸던 서재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러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백발의 자신만이 덩그러니 서 있다. 이에, ‘遠遊之志’를 품었던 젊은 시절과 꿈을 떠올려준 동량의 지팡이만이 의지할 만 하다고 토로한다.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동량 한치원과의 유대에 기대고 싶다는 바람이 읽힌다. 젊은 동량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다. 동량에게 받은 지팡이가 추재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이유는 선물한 이의 ‘젊음’ 그리고, 그와 정신적으로 맺은 유대감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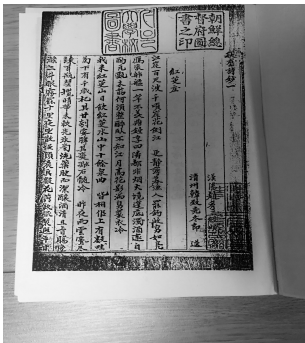
讀秋齋遺詩 추재가 남긴 시를 읽고

一別秋翁已十年	추재와 이별한지 10년이 지났는데
想來顏髮涕漣然	그 분 모습 생각하니 눈물이 범벅이다
石公子姪今云沒	석에 상공 아들 조카 지금은 몰락했다는데
墨樹溪山舊有緣	묵계산장에서 옛날에 인연 있었지
笠屐誰家登繡梓	「笠屐」시 ²⁸⁾ 는 그 누가 시문집에 올려주랴

28) 趙秀三, 『秋齋詩稿』, 「笠屐」, “去年湖南買籊笠 今年嶠南買桐屐 二者恰稱田舍翁 天涯歲暮歸不得 蕭蕭秋雨暗江村 深深夜雪埋邱園 杖藜喜赴隣社飲 尋梅遠敲山僧門 身猶康健性山野 亦以貧故無驢馬 公然棄我閒居樂 晨夕束帶風塵下 東坡小像大仿似 官僮拍手誼如此 春來更截一竹竿 小艇去趁桃花水 再疊 日歸 日歸年復年 默念餘生幾兩屐 少讀群書名未成 晚遊諸侯戒在得 世間安有朱陳村 心中獨營將就園 未信虞卿聘辯說 擔簞躡屩登王門 我家松楸維揚野 無田卓

鉢衣當日在金仙 의발은 당일 금선암에 두었지
 冬郎自是瓣香客 동랑이 이제부터 瓣香客이 되어서
 重訂遺詩三百篇 그가 남긴 시 삼백 편 거듭 교정보리라
 (詩註: 일찍이 추재와 함께 석애상공을 모시고 목계산장에서 수창했다. 또 금선암에서 피서하였다.[曾與秋齋陪石厓相公, 唱酬於墨樹, 又結夏於金仙菴.]

추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詩稿를 읽으며 드는 소회를 읊은 시이다. 이 시의 첫 구절을 근거하여 보면 동랑이 이 시를 지은 시점은 1859년이다. 이 작품은 또한 추재의 詩稿 수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어떠한 동기로 동랑이 『秋齋詩抄』를 엮게 되었는가 단서를 제공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秋齋 시문집으로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 『秋齋詩稿』, 보진재 간행 연활자본 『추재집』, 연세대 소장본 『珍珠船襟存』, 수경실 소장본 『聯牀小譜』, 동국대 소장본 『經畹總集』 등이다. 그 외에 『추재시초』 여러 권이 전하는 가운데, 필사자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동랑 한치원의 『東壁』(內題: 『추재시초』)과 천리대 소장 김병선의 『醉香山樓叢書』 내에 수록되어 있는 『芝園詩鈔』이다.²⁹⁾ 더구나 동랑은 추재와 막역한 사이였으므로 그가 직접 추재 詩를 選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진 2] 冬郎 韓致元이 選한 秋齋詩 『東壁』

錐庭旋馬 蔬蕨折來春礪中 橡栗拾去秋山下 一屐一笠貴何似 冒雨跋泥多於此
 此服自是耕漁流 從今不須憂菽水”

29) 김병선이 選한 『芝園詩鈔』는 김영진 선생님께서 자료를 제공해주셨다.

위의 시 내용을 보면, 동량은 석애 조만영, 추재와 함께 금선암에서 여가를 즐겼던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가 추재와 인연을 맺게 되는 초기였을 것이다. 일전에 추재가 동량에게 주었던 시에서 ‘瓣香’을 언급한 바 있는데, 위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瓣香(客)’이라는 시어가 다시 등장한다. 이로써 추재가 쓴 「贈冬郎」이란 시³⁰⁾가, 그들이 금선암에 동행했던 배경 하에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선암은 西園詩社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던 피서지이자 휴양지였던 듯하다. “石公子姪”은 석애, 운석 형제 및 그의 자제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이 없어졌다는 언급으로 보아, 그들의 勢는 점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변화했던 목계산장(석애 조만영 / 운석 조인영의 별장으로 추정)에서 풍양 조씨 인물들과 추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때를 추억한다. 그는 추재의 「笠屐」시³¹⁾를 언급하면서 이를 누가 간행해줄까 염려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향을 살라 추재에 대한 欽仰을 전담하겠노라 다짐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낱요하고 좋은 방법은 남긴 시편을 수습하여 교정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동량은 자신이 왜 추재의 詩鈔를 엮게 되었는지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

30) 趙秀三, 『秋齋詩稿』, 「贈冬郎」 “山山登頂水窮源, 拍手雲生跋涉痕, 片月自傳千古影, 瓣香誰讀一家言, 人間尚有蓮花舌, 卷裡難招桂樹魂, 苔髮蘿衣如是觀, 巖頭休刻趙芝園”

31) 趙秀三, 『秋齋詩稿』, 「笠屐詩」, “去年湖南買籊笠, 今年嶠南買桐屐. 二者恰稱田舍翁, 天涯歲暮歸不得. 蕭蕭秋雨暗江村, 深深夜雪埋邱園. 杖藜喜赴隣社飲, 尋梅遠敲山僧門. 身猶康健性山野, 亦以貧故無驢馬. 公然棄我閒居樂, 晨夕束帶風塵下. 東坡小像大仿似, 官僮拍手誼如此. 春來更載一竹竿, 小艇去趁桃花水. 再疊. 日歸日歸年復年, 默念餘生幾兩屐. 少讀群書名未成, 晚遊諸侯戒在得. 世間安有朱陳村, 中獨營將就園. 信虞卿騁辯說, 笠躡屨登王門. 家松楸維揚野, 田卓錫庭旋馬. 蕨折來春礪中, 栗拾去秋山下. 屐一笠貴何似, 雨跋泥多於此. 服自是耕漁流, 今不須憂菽水.”

有懷趙芝園老人 조지원[조수삼] 노인을 생각하며³²⁾

卅年重讀秋齋卷	30년간 거듭해서 추재 시를 읽어도
愈見當時未見奇	더더욱 그때 보지 못한 뛰어난 보이니
若使此翁今復作	이 노인에게 지금 다시 시 짓게 한다면
也應許我可論詩	응당 내가 시를 논하게 허락하겠지

동랑이 武科에 합격한 이후, 서울 생활은 더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30년 동안 동랑은 여전히 추재의 시편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했다. 그러나 추재의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뛰어난 점이 보인다고도 했다. 또한 서로의 詩를 알아주는 처지였으므로 추재가 지금 다시 시를 짓는다 해도, 자신과 함께 시를 논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동랑과 추재가 금선암에서 함께 여름을 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추억이 된 듯하다. 향후, 동랑은 지인들과 수창하는 자리에서 “조지원을 말하면 절로 슬퍼지니, 금선암에서 여름 난 후 여러 해 지났네[說到芝園自暗然, 金仙坐夏已多年]”³³⁾라 하여 그리운 마음을 표출했다.

V. 세 사람의 會晤

대산과 동랑은 주로 추재와 함께 동행하여 만나고는 했지만, 동랑과 대산 두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확인된다. 추재가 세상을 떠난 후 대산이 그의 아들과 재회하여 다시금 추재의 기억을 떠올렸듯이, 동랑 또한 대산의 아들과 인연이 되어 대산을 추억한다. 동랑은 우연히 길에서 대산 강진의 아들인 連下 姜龜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문득 자신이 빌려갔

32) 이 시는 『蘇溪集』 坤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실려 있다.

33) 韓致元, 『冬郎集』 卷1, 「與米山入白蓮社 待諸詩人 戲拈蓮字」. 시주에 “曾與趙芝園結夏于金仙菴”라 되어 있다.

던 「唐詩歸」가 생각이 나서 그의 편에 돌려주며 그 소회를 시로 쓰기도 하고.³⁴⁾ 楊湖의 한 酒樓에 묵으면서 같은 장소에서 대산과 하루를 함께 묵었던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³⁵⁾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산, 동량, 추재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서 있었던 시간들이다. 이들 셋이 모여 수창할 기회는 비교적 한정적이었다. 석애 조만영, 운석 조인영 형제와 陪席하거나 아니면, 燕巢亭에서 만남을 가졌다. 혹은 대산이 검서관으로서 入直할때면 두 사람이 함께 와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與秋齋 菡洲 韓冬郎(致堯)直中拈韻

추재, 합주[李廷玉], 한동량[韓致堯]과 直中에서 시를 짓다.

幽靜長廊燕雀音	고요한 장랑엔 제비 참새 소리 들려
身閒端似舊棲林	몸 한가해 오랫동안 숲에 깃든 듯
草薰暖欲蓮池暗	풀 향내 따사롭더니 蓮池가 어두워지려
嶽氣涼成度閣陰	산 기운 서늘하다 閣을 넘어 그늘지네
求士須從歌筑裏	선비를 구하려면 모조록 음악부터 울려야지
逢仙何必海山深	신선을 만났으니 海山深處가 무슨 필요이랴
天邊細月氷壺潔	하늘의 초생달 옥호의 얼음처럼 깨끗하니
便是吾人一片心	이것이 곧 우리들의 一片心이겠지

추재, 동량, 菡洲 李廷玉³⁶⁾은 내각에서 숙직하는 대산을 방문한다. 특히 대산의 시 중에는 내각에서 숙직하며 동료 검서관과 수창하거나, 외

34) 韓致元, 『蘇谿集』 坤, 「對山姜潛先生之子蓮下姜龜秀 見過而因有感舊之懷 共賦長律」.

35) 姜潛, 『對山詩鈔』 卷2, 「韓冬郎乘月來過, 共拈放翁韻」, 『蘇溪集』 乾, 「楊湖題酒樓」에서는 “中秋無月雨絲絲, 獨對寒燈有所思”라 하고 시주에 “曾與姜對山一宿此舍故云”이라 하였다.

36) 대산의 稿本과 『對山詩鈔』, 『秋齋詩稿』에 빈번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정확한 생몰년이나 생애가 고구되지 않았다. 또한 稿本에는 菡洲라는 그의 호가 菡湖로 되어있다.

부 지인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는 상황이 자주 묘사되는데, 이는 당시 검서직들의 일반적 풍경이었다. 규장각의 우아하고도 학예적인 분위기나 궁궐 내부의 아름다움은 굳이 海山深處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자족감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두 구절은 마치 唐나라 시인 王昌齡의 「芙蓉樓送辛漸」에서 “낙양의 친우가 만약 묻거든, 한 조각 얼음 같은 마음 옥호에 있다고 하게나.[洛陽親友如相問 一片冰心在玉壺]”라고 한 구절을 연상케 한다.

이들의 회합장소로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燕巢亭이다. 연소정이 지금까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추재·대산과 동량 당대 西社 동인들은 물론, 이후 19세기 문인이었던 수당 이남규³⁷⁾와, 창강 김택영³⁸⁾의 시문에서 燕巢亭에서 모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때문에, 송석원시사·西社의 同人들 계보를 이어서 모인 장소였는지 실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與秋齋冬郎 燕巢亭餞春(辛丑)

추재, 동량과 함께 연소정에서 봄을 전별하다(신축년, 1841)

久厭蝸牛屋	오랫동안 달팽이처럼 좁은 집 싫어서
初尋燕子巢	처음으로 연소정을 찾아왔다네
名言隨竹記	名言이 대나무 따라 기록돼있고
佳客倩花交	佳客은 예쁜 꽃과 어우러진다
響谷驢通刺	골짜 울리니 나귀타고 와 통성명하고
喧林鳥解嘲	숲 시끄럽게 새도 세상 조롱 변명한다
仙居諒如此	신선의 거처가 진실로 이와 같으니
何用訪三茆	三茆 ³⁹⁾ 를 방문할 필요 무엇 있겠나

37) 李南珪, 『修堂遺集』 冊1, 「小溟姜侍郎 友馨 見邀. 荷塘趙尙書 鍾弼, 霞堂李尙書 根秀 二丈及申員外 冕休, 孫員外 貞鉉, 李承宣 案 偕登燕巢亭」.; 「燕巢亭再會 霞堂丈見邀」.

38) 金澤榮, 『韶濩堂集』 卷3, 「城南燕巢亭 同諸公限韻」.

39) 三茆: 三茅君을 말한다. 道家의 전설에 나오는 세 신선으로 茅盈, 茅固, 茅

鶯聲關帝廟	피꼬리 소리 관제묘서 들리고
草色李家山	풀빛은 李家山과 같다
郭外尋春出	교외에 봄 찾으러 나가보니
橋邊清水還	다리 주변엔 맑은 물 둘러간다
花連叢石韻	꽃은 돌무덤 사이에서 노래하고
松看老人閒	소나무는 노인의 한가로움 보는구나
餘地休栽種	남은 땅이 있거든 나무 심지 마시오
着吾屋數間	나의 집 몇 칸을 그곳에 지을 테니
雲木蒼蒼合	높은 나무 울창하게 모여 있고
芳蹊曲曲過	꽃길이 굽이굽이 지나가서
開門迎客到	문을 열어 오는 객을 맞이하면
滿地落花多	온 땅에 떨어진 꽃 가득하겠지
古洞松含籟	오래된 골짜기 소나무 바람 머금고
遙村麥起波	먼 마을 보리는 물결 일으켜
烹魚炊晶飯	고기 삶고 하얀 밥을 지어서
誠款欲如何	정성으로 대접하려 하니 어떠하신가

대산이 연소정에서 봄을 보내며 쓴 시이다. 이때 동행한 사람은 추재와 동량이었는데, 시의 내용을 따르자면 대산은 燕巢亭에 처음 방문한 듯하다. 간본 『대산시초』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燕巢亭은 1841년 이전의 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初尋燕子巢”라는 구절은 사실로 보아도 합당할 것이다. 전반부의 내용으로 추정된 연소정의 모습은 누군가가 상당히 잘 가꾸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대산은 좁은 자신의 집이 싫증이 나던 차에 남은 땅이 있다면 자신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규재 남병철이 동량의 회인시를 쓰면서 “燕巢亭子紫烟村”이라 하여 동량이 자주 들른 연소정을 거론한 사실로 미루어, 이들 세 사람이 즐겨 찾던 공간이

衷 3형제를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漢景帝 때 사람으로 3형제가 서로 전후하여 句曲山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는데 太上老君이 그들 3형제에게 각각 司命眞君, 定籙眞君, 保命眞君의 호를 내려 줌으로써 ‘三茅君’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연소정을 가장 많이 언급한 이는 추재 조수삼이다. 그가 남긴 詩를 통해 ‘연소정’의 면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시 「무술년에 봄을 보내며 士浩와 내가 연소정 이씨 정원에서 노닐기로 약속했다[戊戌送春日 士浩約余遊燕巢亭李氏園]⁴⁰⁾에서 “성을 등진 왕손의 대, 이름은 예전에 ‘연소’라 하였지.[背郭王孫宅, 名亭古燕巢]”라는 구절을 보면 이곳은 성곽 가까이에 있던 이씨 왕손의 정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소정은 남산 어귀에 있어, 重九에는 그대와 함께 올랐지 [燕巢亭在南山口, 九日登高與子同]”⁴¹⁾라는 구절로 보아 남산 어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 제9구에서 언급된 ‘關帝廟’는 승례문 밖 용산구 동자동에 있었던 南關王廟, 즉 南廟를 말한다. 南廟 건너편 후암동 쪽 남산 중턱에 연소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오르면 남산과 멀리 한강이 보였고⁴²⁾ 대산이 연소정을 보고 탐을 냈듯이, 추재 또한 이곳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는 이곳에서 피서하면서 지은 시에 “와보니 곧 내 집 같아, 주인이 객 머물게 해주네[到來即吾廬, 主人能留客]”⁴³⁾라 하였다. 매년 찾아오는 그에게 허물없이 편하게 대해주었던 모양이다. 그는 봄이 지날 무렵 詩社의 諸賢들과 함께 연소정에서 모여 시를 지었는데, 후배들은 연소정에 애착이 있는 조수삼을 의식하여 이곳을 “趙氏園”이라 불렀다고 한다.⁴⁴⁾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대산 강진과 동량에게 연소정을 소개한 인물 또한 조수삼이라 추정할 수 있다.

석애와 운석이 墨溪山莊을 중심으로 詩人墨客과 문화 공간을 형성했다면, 그들의 磁場 안에 있었던 추재는 풍양 조씨 가문이 세력을 잃게

40) 趙秀三, 『秋齋詩稿』, 「戊戌送春日 士浩約余遊燕巢亭李氏園」.

41) 趙秀三, 『秋齋詩稿』, 「燕巢亭九日」.

42) 趙秀三, 『秋齋詩稿』, 「燕巢亭春日疊舊韻六首」, “遠水登樓見 南山出郭依”

43) 趙秀三, 『秋齋詩稿』, 「五月小晦 避暑燕巢亭 藥圃 槐下同賦」.

44) 趙秀三, 『秋齋詩稿』, 「白社諸賢 送春于燕巢亭」, “年年此日成斯會, 後輩應名趙氏園”

되자 燕巢亭의 雅集에 주력하였다. 젊은 대산과 동량 또한 이를 계기로 추재와 詩緣을 이어갔다. 그가 연소정에 오른 것은 생애 늘그막이다. 脚力을 자랑하며 거뜨 정자에 올라 젊은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하였고, 훗날 이곳이 “趙氏園”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忘形之交를 원했던 그였지만 그 우정을 길게 누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산과 동량을 이어주는 공감대는 추재의 죽음에 대한 애도였다. 즉, 그들은 함께 추재를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VI. 나오며

추재, 대산, 동량의 인연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관계망이 있다. 詩友로서의 유대감, 西社의 구성원, 자손에까지 이어지는 교유가 그것이다. 특히 추재와 대산은 풍양 조씨 가문의 庇護를 받으며 詩作 활동을 했던 시인들이다. 동량도 잠시나마 풍양 조씨의 별장이었던 墨溪山莊에서 그들과 詩緣을 맺었었다. 19세기가 풍양 조씨 가문, 안동 김씨 등 京華별열의 주도 속에서 문화지도를 완성해갔다면 그 세부 話素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존에 양반 관료중심의 공식 契會 및 사대부들이 전유했던 私的 詩會가 중인 계층의 동호회에까지 확산됨으로써 풍류의 집단적 향유가 다양한 계층으로 보다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기술직 중인과 경야전층을 중심으로 한 중인층 ‘詩社’와 ‘歌壇’의 형성, 그리고 ‘시회’ 및 ‘풍류방’ 공간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새로운 문화 향유의 유형을 양산하게 된다.⁴⁵⁾ 그리고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詩會에서 만큼은 계층의 엄격함이 완화되어 중인층, 庶族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일상의 文藝生活이 모여 문화지도를 완성해가는 것이므로 그 궤를 함께한 中人, 庶族 문인들도 함

45) 서지영,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유럽 ‘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5집, 진단학회, 2003, p.287.

께 연구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시기의 지식 정보 전달과 향유에 있어 추동력이 된 이들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필요성은 한층 倍加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이 경화세족의 磁場 안에서 문예 활동을 시작했지만 19세기 경화벌열의 몰락 속에서도 또 다른 유형의 교유관계를 형성한다는 데에 있다. 이들은 신분과 나이를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공유하면서 순수한 ‘同好人’의 형태를 띤다. 추재와 대산, 동량의 교유 역시 그 범주 안에 속한다.

사대부계층과는 달리, 이들은 변변한 관력도 행장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남긴 시문들을 천착해 고구하고 그 윤곽을 잡아주는 작업은 18, 19세기 문화지도의 점과 점을 이어주는 작업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參考 文獻>

- 姜 滔, 『對山集』,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 『峽館紀行詩鈔』, 後孫家藏本.
——, 『對山詩鈔』, 後孫家藏本.
金秉善, 『芝園詩鈔』, 日本 天理大 소장본.
金澤榮, 『韶濩堂集』, 『韓國文集叢刊』 347, 한국고전번역원.
南秉哲, 『圭齋遺藁』, 『韓國文集叢刊』 316, 한국고전번역원.
申 緯, 『警修堂全藁』, 『韓國文集叢刊』 291, 한국고전번역원.
李南珪, 『修堂遺集』, 『韓國文集叢刊』 349, 한국고전번역원.
趙秀三, 『秋齋詩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趙秀三 著, 韓致元 編, 『東壁』,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韓致元, 『蘇谿集』,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 『冬郎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서지영,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유럽 ‘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5집, 진단학회, 2003.
- 줄 고, 「추재 조수삼의 연행시와 「외이죽지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 「대산 강진의 삶과 시」, 『한문고전연구』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 「19세기 검서관 대산 강진의 시자료에 관하여-자료 검토와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2집, 한국한문학회, 2013.
-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Abstract

*Through friendship poems of Chujae Cho-susam, Daesan Kang-jin,
Donglang Han-chiwon / Kim Young Jook**

Since the 19th century, In the face of poetic meetings the Middle-class intellectuals had a leading role. Beyond the limitations of identification, They take advantage of the knowledge-based culture of communication.

Chujae Cho-susam, Daesan Kang-jin, Donglang Han-chiwon three People are The most typical example.

That was the time when they befriend the mid-19th century. At that time Beolyeol(閥閥) who owns forces were getting weaker. Hegemony of culture was no longer their exclusive property. To transcend hierarchy, the Middle-class intellectuals were sharing a cultural preference. They met to write a poem just. The meeting was a pure form of the poet.

These meetings are important. Because to be able to gauge the cultural map of the era.

Prior to study the culture of the gentry, what is important is to identify the existence which it is possible to connect between the two. In this study, I reproduced the meeting of three people, through a number of materials.

Perhaps in the late Joseon culture will be one of the samples to prove they did play any role.

【Key words】 Chujae Cho-susam, Daesan Kang-jin, Donglang Han-chiwon,
the Middle-class intellectuals, meeting, the 19th century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Researcher / wenxue@hanmail.net